

북천제각(北川祭閣)

Puck-Cheon Je Gark

문철수 / 두양건축사사무소

Designed by Moon Chul-Soo

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조상에 대한 뿌리 깊은 숭배의식을 지녀 왔다. 그 끈질긴 뿌리의식의 끈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도 이어져 내려왔고, 현대 과학 문명의 시대인 오늘날에 와서도 그 면면함은, 세계에 유례없는 명절 민족 대이동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.

그 강인한 뿌리의 끝에서 서 있는 신성한 공간 - 조상신을 모시는 성소, 그것으로 조상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장소 - 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종교적 공간일 것이다.

제각은 이렇듯 우리의 생활 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인데, 아직껏 그 건축 공간은 마치 공동품과 같이 취급되어져 왔다.

원래 진정한 건축공간이란 그 기능이 무엇이 될지라도 그 속에서 그 시대 사람들의 정서와 생활을 담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. 그것은 옛날의 시간에 정지되어 있는 골동품과 다르고, 기만히 바라만 보아야 하는 조각물과도 다른 것이다.

현재를 사는 바로 우리들의 손때가 묻어 있어야 하고, 그 속에서 우리의 제취(定體性: Identity)를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이 골동품이 아닌 살아있는 건축 공간의 특질인 것이다.

최근까지 지어져 온 대부분의 제각 건축은 이미 우리의 생활과는 단절된, 옛날의 건축공간과 외형을 습관적으로 답습해 오곤 했었다.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못해, 되는대로 현대적 부품을 끼워 넣어 그 야말로 괴상망측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야 마는 어리석음을 되풀이 한 것도 적지 않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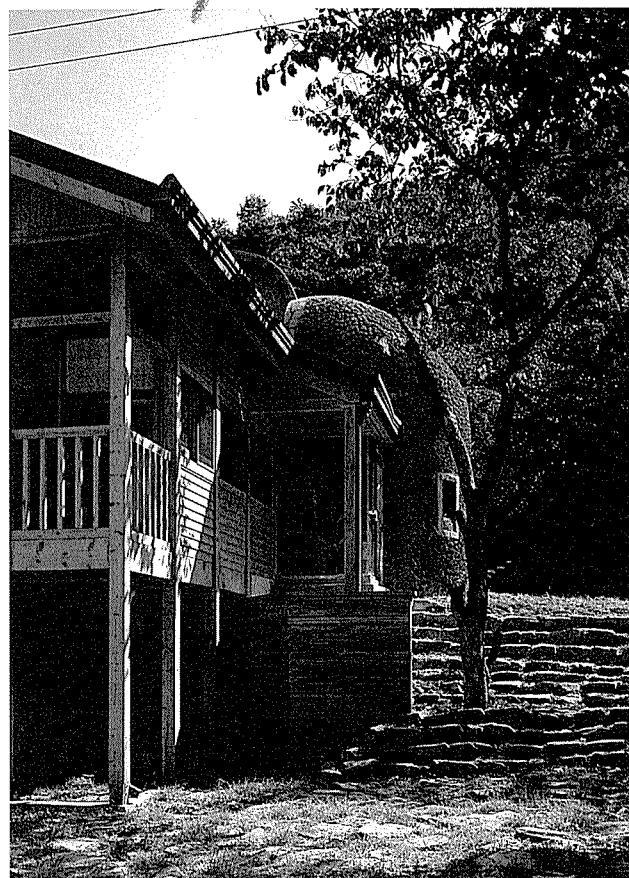
그토록 대단한 뿌리의식을 가진 민족이 왜 그 소중한 상징적 공간의 구성을 옛날에만 의존해 와야 했을까? 전통, 혹은 전통 건축을 만지는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두려움과 수구성(搜求性) 때문이었을까? 아니면 그 의미 해석에서의 부족함 때문이었을까? 그것도 아니라면 건축주와 건축가들의 태만 때문이었을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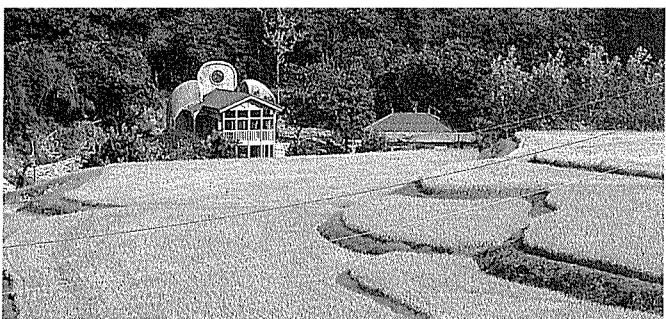
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아쉬움과 한계를 느껴야만 했다. 하지만 어찌됐던 많은 비난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감히 전통제각의 현대적 해석과 그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. 물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것임을 안다. 단지 누군가 뛰어야만 하는 첫단추를 뛰어본 것일 뿐이다.

더 나은 제각들이 훌륭한 건축가 손에서 다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…

건축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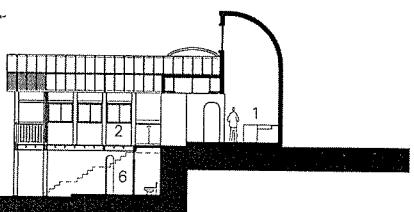
대지위치	경남 하동군 축천면 직전리 138번지
지역지구	준농림지역
대지면적	443m ²
용도	종교시설(제실)
건축면적	77.17m ²
연면적	93.66m ²
건폐율	17.42%
용적률	21.14%
내부마감	벽지(갈포)마감/지정색 드라이비트 피니쉬마감
외부마감	몰탈쁨칠(건스프레이)/밤라이트사이딩(목무늬)
규모	지하1층, 지상1층
구조	목구조
설계담당	박재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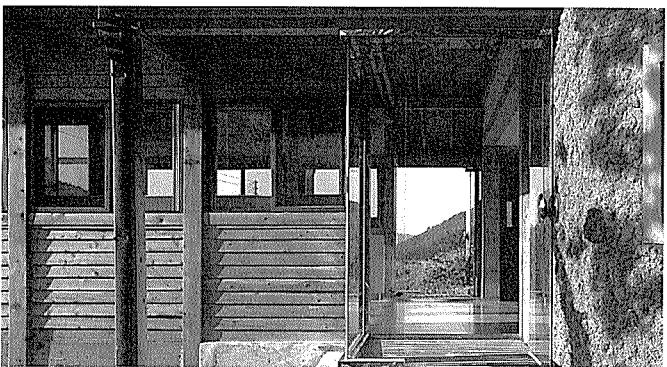


6402

1. 신도대
2. 비례공간
3. 주방
4. 대기실
5. 4m도로
6. 데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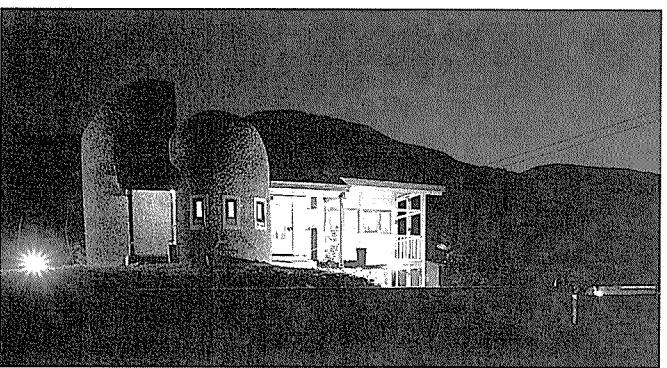
종단면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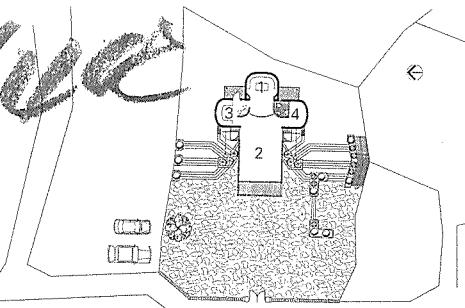
6402



서측 입면도



6402



배치 및 기준총평면도



2402